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6일 화요일 음 11월 13일 (5물)

한라칼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기온은 3~6℃, 낮 최고기온은 11~12℃로 예상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오전, 강수 확률, 오후. Includes percentages for rain and snow.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moon phase, and visibility information.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7/14℃, 모레 대체로 맑음 6/14℃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러시아 맥도날드 철수에 구직자 급증

올 10월 전년대비 47% ↑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 외식업체들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해 동종 업계에서 새 일자리를 얻으려는 현지 구직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에서 철거되는 맥도날드 간판 연합뉴스

5일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러시아 전역에서 요리사나 웨이터, 바텐더 등 외식업계 직종을 희망한 구직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늘어난 26만 9000명으로 나타났다.

이코르 부하로프 러시아 호텔·레스토랑경영자연맹 회장은 "올해 들어 외식업계에서 일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앞서 맥도날드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인 지난 3월 중순 러시아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현지 매장 850곳을 폐쇄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김윤우 무릉외장집

최근 농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팜파티'와 '러스틱 라이프'가 그것인데 농가들의 창의적인 마케팅 기법이다.

농촌형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는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는 농가 체류형 농촌체험 프로그램

'팜파티' 등 새로운 농촌체험 프로그램 출현

으로 주로 일손이 부족한 감귤농가와 도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콜라보레이션이다.

우선 '팜파티'는 오래전부터 몇몇 농가가 진행해 왔던 프로그램으로 최종소비자인 도심지 소비자들이 농작물 수확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음식물 만들기 체험은 물론 농산물 꾸러미 꾸리기 체험까지도 진행을 하게 된다.

농장 중심에 모닥불을 피우고 자그마한 무대를 만들어 체험객 대부분이 감귤콘테이너를 뒤집어 의자를 만들고 무대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운다.

'팜파티' 피날레인 농장 버스킹은 미리 초청한 가수가 어쿠스틱 기타로 감성과 흥을 살리내면 체험객들은 때창으로 분위기를 띄운다.

이러한 '팜파티'로 일정량의 감귤 수확과 판매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과 공연을 통해 도심지 소비자들과의 공감과 상생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기법일 수도 있다.

또한, '러스틱 라이프'는 극조생 감귤이 끝나고 일반 조생감귤 수확철을 즈음해 진행되는 농장 체류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도심지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2시간 단기형, 2박 3일형, 10박 11일형이 있다. 이 중 10박 11일 프로그

램이 가장 인기가 높다.

참가자들은 감귤농장을 찾아 부족한 일손을 제공하고, 감귤농가는 체험객들의 숙식과 약간의 수고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체험객은 체류 기간 중 2-3일간은 감귤 수확을 돕고 다음날 휴식일을 활용해 제주여행을 할 수 있어 도심지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매력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농가 입장에서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고 체험객과의 교감을 통해 충성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점차 참여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마침, 6차 산업지원센터나 농협중앙회 등 관계 기관에서도 농가와 도심지 소비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기존의 '팜파티'와 '러스틱 라이프'의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본다.

열린마당

문화 불모지에서 시작되는 문화 자치



고봉수 용담다목적생활문화센터장

마을에서의 문화 자치 혹은 문화 거버넌스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막대한 자급력을 기반으로 하는 서울처럼 문화 인프라가 다양한 환경에서는 선택지가 무궁무진할 수 있겠지만, 아직 도시화에 편입되지 못한 채 도시 공동화를 겪는 우리 동인 경우에는 사정이 많이 다르고, 우리가 가진 문화자원의 한계도 느끼고 있다.

지금의 마을 문화 생태계를 살펴보면, 중앙 하달식 행정 관습에다 '문화'라는 단어의 무게는 한류문화마냥 거주장소스러워져, 개인이 갖고 있던 정체성, 각 마을이 갖고 있는 독창성과 고유성까지 일순간에

뒤어버렸다.

문화 불모지에서 하나의 돌파구로 선택한 것은 마을을 하나의 캠퍼스로 보고, 각각의 마을 동양리를 찾아 나서는 일이다. 사람을 잊고, 관계를 잊고, 마음을 이어, 마을을 이어가는 작업부터 시작한 셈이다. 이렇게 모인 구성원들은 수평적 협치 관계를 기반으로 자율성과 민주성을 함께 부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그랬더니 오래된 골목, 일찍 어두워지는 조용한 동네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드림연주가 시작되고 마을이 활기를 되찾고 기쁨을 나누는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생활문화에서는 매머드급 기획으로 동네를 문화예술마을로 조성하거나, 전문가들만의 네트워킹으로 만들어진 위대한 기획물이 아니라 동네 주민을 위한 생활문화가 필요하고 주민마다의 문화향유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이것이야말로 '문화자치의 시작점'일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친절한 사람을 좋아한다



양윤정 서귀포시 표선면

우리가 자주 쓰는 친절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항상 웃으며 타인을 대하는 사람.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 등 종류는 다양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친절할 사람을 마다하는 자는 없다는 것이다.

실생활에서도 우리는 친절할 사람이 될 수 있다. 근무를 하다보면 다양한 민원인을 만난다. 그럴 때 자기 부서의 민원인이 아니더라도 반갑게 맞아주고 배웅해 주는 것이 어떨까. 사소하지만 가볍게 인사하고 주민마다의 문화향유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이것이야말로 '문화자치의 시작점'일 것이다.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불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웃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도 친절할 사람이 되는 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부정적인 모습으로 타인을 대하면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이다. 웃기 위해 입꼬리를 올리는 것은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지만 타인을 웃게 할 수 있고 웃을 때는 엔도르핀, 일명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도 상승시킬 수 있다.

어느새 코로나가 생활에 익숙해질 만큼 시간이 흘렀다.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는 작은 자유가 생겼고 사람들의 얼굴을 오랜만에 볼 수 있게 됐다. 실내에서는 아직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다. 각자의 표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지만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마주할 때 서로에게 가장 좋은 힘이 되지 않을까.

Advertisement for domestic sweet corn products, listing various varieti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Purnajigae Farm.

Advertisement for various types of sweet corn, listing varieties like Wintecor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Minseongjungmyo.

Advertisement for various types of sweet corn, listing varieties like Cheonhehyang and contact information for Jeoniljungmyo.

Advertisement for TIEN Information Technology, providing services like voice/video equipment and network setup.